



부산종교인평화포럼 공식 출범

상임회장 정여스님 “‘우리는 하나’ 대승적 실천 지킬 것”

부산 7대 종교 지도자가 종교 간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종교인평화포럼(상임회장 정여, 이하 포럼)은 4월 16일 오후 6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정여 스님을 상임회장으로 공식 출범했다.

포럼은 정여 스님 외 임원진 40명, 이사진 37명, 지도교문 25명, 자문위원 15명 등 80명의 종교지도자로 구성됐다.

부산지역 범종교인 교류모임으로 종교간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정신문화를 선도, 지역과 국가의 발전, 평화통일과 인류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립했다.

창립대회는 안인석 교무(원불교, 동래교당 교무)의 경과보고, 박철 목사(좋은나무교회 목사와 김중성 교수(천도교, 부산예술대의 창립선언문 낭독 및 채택, 정관 채택 및 임원



부산종교인평화포럼에서 80여 종교지도자들이 종교평화를 다짐하고 있다.

진 인준, 임원진 소개, 상임회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취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초대 상임회장으로 취임한 정여 스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도처에는 아직도 종교 간 갈등과 충돌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

고 있다”며 “여러분이 추대해준 공덕으로 종교간 화합과 이웃종교를 배려하는 유기적 교류로 우리는 하나라는 대승적 실천을 지키자”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인이 부러워할 만한 평화로운 부산을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종교인평화포럼의 창립을 계기로 종교 간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지고 사랑과 평화, 상생과 화합의 기운이 충만한 부산이 되길 기대한다”며 축하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정여 상임회장(범어사 주지, 부산시불교연합회장), 정영문(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중회장), 윤종모 주교(성공회 관구장), 이영목(천주교 총대리신부), 김일상(원불교 부산교구장), 박호권(천도교 부산교구장), 송윤복(유교 부산회장) 등 부산지역 7대 종교인 및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향후 종교간 이해와 협력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종교강좌 및 종교 교양지 발행, 종교별 성지순례와 시민을 위한 종교문화센터 운영, 범종교인 평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차례로 실천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보살행 실천하는 경찰 되자”

부산·전북경찰청 불속법회 봉행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찰불자를 위한 불속법회가 잇따라 열렸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종확)은 4월 21일 불속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경승총무 성각 스님(원각선원 선원장) 집전으로 경승화산 스님(삼광사 주지)의 발원문, 부산지방경찰청 김종확 청장의 축하인사, 경승실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의 법문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김중확 경찰청장은 “2553년 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인에 보살행을 베풀어 진리의 길임을 몸소 증명해 보였듯,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 진정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경승실장 정여 스님은 축하법문을 통해 “범죄로부터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산 시민의 불행이 되고 민중의 지팡이가 돼 이끌어주는 경찰



4월 21일 거행된 부산지방경찰청 불속법회(왼쪽)와 19일 봉행된 전북경찰청 무진법회.

가족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길 기원 한다”며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에 관한 법문을 펼쳤다.

이날 법회에는 경승실장 정여 스님, 경승총무 성각 스님, 경승화산 스님(삼광사 주지), 금중 스님(해광사 주지), 원해 스님(선암사 주지), 원허 스님(해원정사 주지) 및 김종확 경찰청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선 19일, 전북지방 경찰청에서는 전주 시내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에서 ‘제3회 전북 지방경찰청 경찰가족을 위한 무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경승단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전북지방경찰청 경승



실장 원해 스님, 완산경찰서 경승실장 덕산 스님, 군산 송월 스님, 순창 장덕사 청암 스님 등 30여 명을 비롯해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나유인 전북지방경찰청 자회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원행 스님은 “경찰이라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맡은바 임무에 충실한 불자가족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원해 스님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사회에 항상 봉사하는 경찰가족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박지원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애인 놀이한마당 ‘다채’

송광 정심원서

송광 정심원(이사장 도영, 완주 송광사주지)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신나고! 즐거움! 놀이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우호초 정심원장, 정병호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풍물패(단장 양종)가 신명나는 우리가락을 선보였고, 평희마을(단장 김상휘)이 축하공연 등을 펼쳤다. 특히 정심원

가족 노래자랑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도영 스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물이며, 서로 연결되고 의존된 것을 알면서 어떤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된 참된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며, “정신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시설환경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송광 정심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평화시장 불자회 창립

“상인들 마음의 의지처 되길...”

부산을 대표하는 평화시장에 상인들로 구성된 불자회가 결성됐다.

평화시장은 4월 18일 오후 6시 3층 변영회 사무실에서 창립기념회를 갖고, 회원 모집에 들어갔다. 부산 3대 도매시장인 진시장과 자유시장, 그리고 평화시장 중 유일하게 불자회가 없었다. 이에 평화시장 변영회는 사무실 내에 불단을 조성하고, 시장 일대에 연등을 달아 거리를 환히 밝혔다.

시장 상인이자 포교사 출신인 양준동 거사는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오면서 불자회가 없다는 것이 아쉬

웠는데, 이번에 여러분과 뜻을 모아 불자회를 창립하게 됐다”며 “이미 진시장 불자회는 오랜 역사만큼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만큼, 우리 평

화시장 불자회도 상인들의 마음의 지체가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평화시장에는 950여 개 점포에서 총 520여 명의 상인이 일하고 있어, 앞으로 불자회 참여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향후 불자상인으로서 가져야 할 서비스 소양교육과 수련, 복지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4월 18일 부산 평화시장불자회 창립기념회에서 상인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특전사 수계법회

호국정각사서

나라를 지키는 최정에 특수부대를 위한 수계법회가 진행돼 화제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사몽)는 4월 19일 호국정각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제11공수특전단 황금박쥐부대원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백양사 주지 사몽스님을 계사로, 정광 정혜원 주지 혜종 스님을 비롯해 부연대장 박환수 대령, 신도회장 이강석 중령 등 200여 군부대 장병들이 참석했다.

사몽 스님은 수계법문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의 실상을 알 수 있어야 한다”며 “황금박쥐 부대원은 국가를 지키는 가장 뛰어난 병사들로 가족은 물론 국가를 위해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법홍포 위해 노력하자”

동래구불교연 15대 회장 자관 스님 취임

지역 포교와 부산불교중흥의 임무를 담당해 온 동래구불교연합회의 15대 회장으로 자관 스님(대한불교 자비암 주지·사진)이 취임했다.

동래구불교연합회는 4월 19일 오후 3시 30분 대한불교 자비암(주지 자관)에서 제15대 회장단 이·취임 기념법회를 갖고 신임 회장을 위촉했다.

취임법회는 발원문, 경과보고, 이임회장 공로패전달 및 이임사, 신임 회장 임명장 수여 및 취임사,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석봉 스님은 이임사에서 “전 회원 스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한다면 우리 동래구불교연합회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자관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법을 흥포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희망찬 동래구 불교연합회의 모습을 설계하는 일은 회장 한 사람의 원력으로는 불

가능하다”며 “지난 기간 우리를 지도해준 선지식과 사부대중의 공덕을 이어 열심히 정진해 동래구불교연합회가 불법홍포와 부산불교중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부산시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이진복 한나라당 최찬기 동래구 국회의원, 동래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생명나눔 광주 장기기증 서약서 전달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4월 17일 행정안전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유창중)에서 공무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Dream 헌혈·장기기증 행사’를 개최하고 장기기증

서약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16명의 장기기증 서약서가 광주생명나눔실천에 전달됐고, 72명이 헌혈 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자비행이 펼쳐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기2553년4월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은누리에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중정법련덕범

- 승정원장: 청호만오
- 총회의장: 청호만오
- 총무원장: 화륜송봉
- 사무총장: 남송송봉
- 선원장: 법친청강
- 호법원장: 도행
- 교육원장: 지언
- 포교원장: 대력륜
- 문화원장: 법공
- 국제문화원장: 상천
- 감사원장: 상천
- 전국포교사회장: 보하
- 전국포교사부회장: 청정
- 전국신도회장: 승만석
- 전국신도부회장: 권탁위
- 전국신도회부장: 김영규

- 직할교구총무원장: 대력
- 서울교구총무원장: 홍각
- 경기교구총무원장: 일광
- 대전교구총무원장: 보성
- 충북교구총무원장: 법장
- 충남교구총무원장: 일타
- 부산남부교구총무원장: 상천
- 부산남부교구총무원장: 청련
- 구미교구총무원장: 규봉
- 대구교구총무원장: 구강
- 창원교구총무원장: 대비
- 마산교구총무원장: 대봉
- 동마산교구총무원장: 대행
- 거제교구총무원장: 금봉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종단 등록자중 제2차 제적자 공고

* 아래 사찰 및 승니 / 포교사는 정관 제 6조 및 8조 중헌 제18조에 의거 총회에서 제적결의
* 제적일자 : 2009년 3월 1일부. 제적자는 본 종단명의로입무 일체금지, 사찰등록증, 승려 / 포교사 증 효력상실
* 본 종단 소속으로 각 세무서 등록 즉각 취소요망, 연말전산 영수증 발급금지요망

제2차 제적자 명단

사찰명	지역	성명	불명	사찰명	지역	성명	불명	사찰명	지역	성명	불명	사찰명	지역	성명	불명
동천사	대구동구	최희모	혜암	백마암	부산주례	김옥자	수정	선왕정사	김해	이동식	무등	흥륜사	울산화정동	홍화자	법화
흥련암	대구남구	이경자	묘행	내원사	부산대저	장점자	덕련	구룡정사	김해	류하근	해봉	영축암	울주	김수남	대련
학정포교원	부산해운대	김남희	흥련	해선암	부산영곡	정점덕	련수	김해	한오석	출산		천룡사	울산	유우호	법성
대곡사	부산구포	김청길	영봉	성불사	부산강서	유영순	해련	광명포교원	김해	정광열	명봉	영수사	울산남구	박인성	수인
				내원암	부산동래	박일숙	정혜	약수암	김해	김명영	고경	우리절	거제연초	박성훈	일봉
				구포포교당	부산구포	정경옥	백련	재정사	마산	신중수	연봉	관음선원			
				오봉정사	부산대저	이외득	효련	재정사	마산	변재	수봉				
				월정암	부산괴정	이영숙	정심	구원사	김해	김양용	도성				

불기2553년 4월 8일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이사장 신용태 법련·총무원장 강경우 송봉

총본산 대무량사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번지 전화 055)672-4394, 4591, 4592